‘웰다잉’ 인식 확산 … 불교계 아직도 무관심

불교계 ‘죽음준비’ 현황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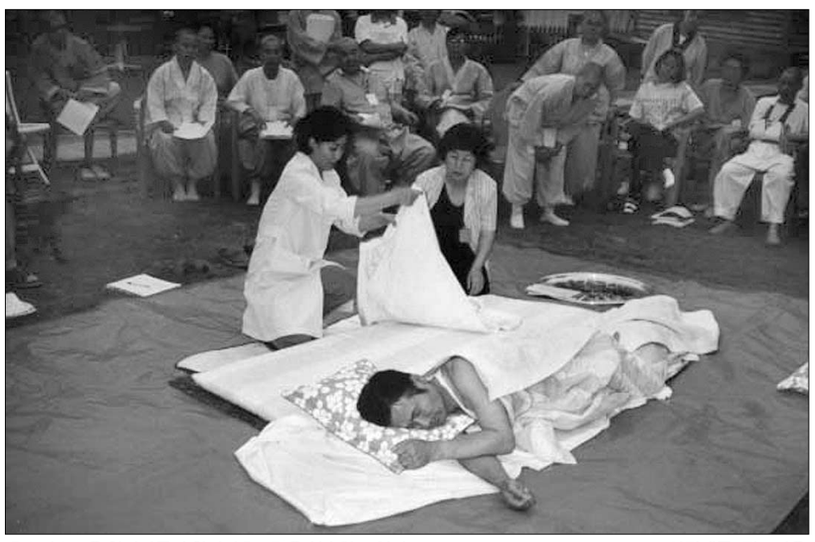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금기시해온 죽음이 이제는 삶의 한 과정으로 간주되고 있다. ‘잘 산다는 것은 잘 죽는다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를 위해 강조되는 것이 죽음 준비다. 자신과 가족의 죽음을 미리 대비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이고,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웰다잉(Well-Dying)이다.

불자들의 의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 본지가 1215명의 불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100세 시대-불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3%가 죽음준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 응답자는 20~30대에서 50%대에 머물렀지만, 40대 69.5%, 50대 73.2%, 60대 80.8%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죽음준비를 필요로 하는 비율이 높았다.

美 · 日선 죽음준비 교과과정 개설
국내 호스피스기관 88% 기독교계
죽음교육 선교차원서 잇따라 도입
불교계 시설 적고 교육 산발적

이처럼 많은 불자들이 죽음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아는 이들은 의외로 적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죽음준비를 원하는 응답자의 3분의 2 가량이 구체적인 방법을 모른다고 답해 이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미네소타 대학에 ‘죽음의 준비과정’이라는 교과가 개설된 것을 시작으로 1970년대 들어 전국에 1100여개 과정이 개설됐고, 초 · 중등 교과서에도 반영됐다. 일본도 삶과 죽음 교육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2005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호스피스교육 참가자들이 환자간호요령을 실습하고 있다. 사진제공=정토마을

이에 반해 죽음준비라는 개념조차 낯선 한국에서는 교과과정 반영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 종교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호스피스와 죽음준비교육이 확산되는 추세에 만족해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불교계는 이조차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 등록된 80여개의 호스피스 기관 가운데 87.5%가 기독교계 기관과 병원이다. 불교계 호스피스 양성교육은 불교계 유일의 독립형 호스피스 시설인 청원 정토마을을 필두로 양산 통도사 자비원, 보성 대원사, 서울 수효사, 대구 관음사 영남불교대학, 불교자원봉사회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종단차원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천태종이 유일하다.

절대 다수의 호스피스 기관이 기독교계에 속해있다 보니, 기독교인 자원봉사자가 훨씬 많이 배출된다. 봉사현장에서는 기독교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불교계의 10배가 넘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임종을 맞는 불자가 불자 호스피스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다.

불교계의 열세는 죽음준비교육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의 경우 1991년 각당복지재단 산하에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를 발족시키면서 죽음준비교육을 이슈화 한 이래, 죽음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또 개별 교회 차원의 죽음준비교육도 활발해 지난해만도 서울 금호교회, 평화성결교회 등에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교회들도 죽음준비교육을 앞다퉈 도입, 선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불교계에서는 죽음준비에 대한 논의조차 활발하지 못하다. 프로그램으로는 조계사가 수탁관리하고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죽음프로그램 이외에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이웃과 후손을 위한 생명나눔캠페인’(2002년) ‘아름다운 흔적 자서전 쓰기’(2003년) ‘보살생과 서원으로 여는 내생’(2004년) 등을 마련한 바 있다.

보성 대원사는 템플스테이에 죽음교육을 접목했다. 대원사는 지난 해 템플스테이 주제를 ‘죽음을 준비합시다’로 정하고, 사후 49일간을 미리 겪어보는 바르도 체험과 임종염불 등을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좋은 호응을 받았다.

이처럼 불교계의 죽음준비 관련 활동이 산발적인 수준에 머무는 이유에 대해 권경임 한국종교사회복지포럼 회장은 “죽음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불교계의 인식이 미흡한데다, 불자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불교계 병원이 적다는 데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죽음은 당사자나 주위 가족에게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종교적인 순간임을 감안할 때, 호스피스의 보살핌은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는 계기가 된다. 실제로 보살핌에 감동해서 개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볼 때 불교는 포교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불교 본연의 자비정신 실천이나 불교적 방식의 중생구제 기회를 놓친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다.

대원사 현장 스님은 “기독교의 호스피스 활동은 진실에 의한 접근이라기보다 신앙으로 유도하는 것인데, 생사해탈의 지혜가 풍부하게 담겨 있는 불교가 기독교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불교적인 호스피스,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관심과 방법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 호스피스 교육기관

‘정토사 관자재회’ 대표적 … 종단차원은 천태종 유일

호스피스(hospice)는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위안과 안락을 베푸는 봉사활동이다. 호스피스 봉사의 수혜자는 임종을 앞둔 환자와 보호자 가족들뿐이 아니다. 한국호스피스협회에 따르면 호스피스 봉사자는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도 삶의 보람과 서로에 대한 이해,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교육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호스피스 교육에서는 호스피스의 개요에서부터 죽음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법, 신체적 돌봄, 말기 암 진단과 최신 동향, 사별 가족 관리, 환자 관리, 스트레스 관리, 감염 및 안전 관리, 호스피스 대상자와의 영적 상태와 대처 방안, 호스피스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상태와 대처 방안 등을 배우게 된다.

불교계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재)정토사관자재회, 천태종 사회복지재단, 통도사 자비원, 수효사 효림원 복지대학 등이다.

불교계 최초의 독립형 호스피스 시설 정토마을을 운영하는 (재)정토사관자재회(043-298-2258)에서 주최하는 불교전문호스피스 교육은 1995년 첫 교육이 시작된 이래 매해 두 차례 이상 이어지고 있는 전문 교육이다. 7박8일 동안 24개 호스피스 전문과목과 임상 · 이론을 겸한 전문인력을 집중 교육한다. 제22기 불교전문호스피스 교육은 2006년 1월 15~22일 진행된다.

천태종 사회복지재단(02-575-3467)은 2002년부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해 3년 동안 기본교육 수료자 671명, 심화교육 수료자 410명을 배출했다. 호스피스 봉사자로 이뤄진 니르바나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연중 교육을 통해 호스피스를 양성하고 있다.

통도사 자비원(055-381-2005)은 2002년 제1기 호스피스 교육을 시작한 이래 현재 7기까지 230여명의 호스피스를 배출했다. 올해는 2~3월경에 호스피스 교육을 준비 중이다.

수효사 효림원 복지대학(02-313-2398)의 호스피스 과정은 2004년 시작돼 2기까지 양성했다. 2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호스피스 교육은 2~3월경 3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불안감 달래주고 편안한 임종 도와요”

■ 호스피스 홍보대사 김명자씨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호스피스에 대한 요청이 많아 무작정 뛰어들었지요.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교육 받고 싶어도 처음에는 불교계에서 호스피스 교육하는 곳을 알 수가 없었어요.”

자원봉사 교육을 받고 병원에서 봉사하면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게 된 김명자(55)씨. 호스피스로 봉사한지 어느덧 10여 년이 훌쩍 넘었다. 봉사하면서 체계적인 교육에 목말라하다가 만난 것이 사회복지법인 서울 수효사 효림원에서 운영하는 복지대학이었다. 김씨는 2004년 수효사 복지대학 1기 호스피스로 교육받았다.

환자 응대법 등 전문교육 받아야

“3개월 동안 호스피스의 자세, 행동요령, 마음가짐 등을 전문가들에게 배우면서 환자를 긍정적이고 밝게 대하는 법을 터득했어요. 교육받지 않고 호스피스 활동을 하게 되면 환자의 감정에 따라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일이 많아요. 호스피스는 중심을 지키고 환자의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죠.”

무방비로 자원봉사 하는 것과 비교해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봉사하는 것은 한 단계 높은 차원이라고 지적한 김씨는 “호스피스는 종교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해드릴 수 있고, 불자라면 꼭 교육을 받고 환자의 마지막 길을 같이 해드리는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호스피스 홍보대사를 자처했다.

서울아산병원, 경희의료원, 동대 강남병원 등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했던 김씨는 요즘은 일산 동대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봉사하고 있다. 가톨릭계 병원인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불자 환자들이 불교 호스피스를 원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호스피스는 환자의 육체적인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사후에 대한 불안감 등을 잘 달래 편안한 마음으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저희 호스피스가 할 일이죠.”

글=강지연 · 사진=박재완 기자

謹賀新年 佛紀 2550年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회 주 성타 주 지 종상

학 장 덕 민
선 원 장 종 우
부 주 지 관 우
총 무 장 주
기 획 종 근
교 무 종 천
재 무 정 문
사 서 신 행
교 육 보 명
문 화 기 형
신도회장 변영우

부설기관
불국사 문화회관
불국유치원
성림 어린이집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TEL 054)746-9912~4 FAX 054)746-1476

대한불교조계종 제 25교구 본사
봉 선 사

조 실 월운 해룡
회 주 밀운 부림
주 지 설산 철안

연수원장 수월 재무국장 혜만
총무국장 가산 사회국장 현봉 능엄학림 대중일동
기획국장 송묵 포교국장 화해 사 무 장 이희준(법운)
교무국장 경산 호법국장 연흠 회 계 이영미(일진행)

나만의 법당 www.bongsunsa.net (한글도메인:봉선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번지
TEL 031)527-1951~3 FAX 031)527-8568